

인구 소멸 고심 전남 지자체들 '나는 SOLO' 같은 프로 만든다

'광양 솔로엔딩'·'보성애서 우연한 만남' 등 벤치마킹 실제 결혼 커플도 탄생...장흥군 내달 6일까지 모집

'하트시그널', '나는 SOLO' 등 방송 연애 프로그램이 화제인 가운데 전남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남녀 매칭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이 지역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실제 결혼한 커플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의 주원인이 되는 청년들의 비혼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광양 솔로엔딩' 프로그램의 최근 남성 경쟁률은 3.5대 1에 달한다. 여성 경쟁률도 2대 1로 높은 편이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기업체에 근무하는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남성의 경우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광양이어야 한다. 여성의 참여를 위해 주민등록지와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참가자들은 7시간 동안 특강과 매칭토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상

반기에는 4월 29일에 열렸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10월에 시작된다.

실제 방송 연애 프로그램처럼 데이트를 하고 러브 매칭카드 등을 교환하며 프로그램을 마칠 때는 최종 커플 매칭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당시에도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줌)을 통해 진행될 만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쌍이 탄생했다. 4쌍은 결혼했다.

보성군도 오는 11월 10일부터 1박 2일간 '보성애서 우연한 만남' 프로그램을 첫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보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또는 근무하고 있는) 만 27세부터 만 38세(1997~1985년생)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와인파티와 향수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친밀도를 높인다.

무안에서도 '심쿵 설렘 청춘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대상은 무안에 있는 기업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미혼남녀(35세~42세)다. 바쁜 일

상생활로 이성과의 만남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무안군이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한 결과 남녀 50명(남성 34명, 여성 16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여수로 이동해 이순신 광장과 생태갯벌센터 등에서 조별 커플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등을 함께했다. 다음날까지 식사와 커플 게임 등을 하며 이른바 '썸매칭'을 한다.

이같은 남녀매칭 프로그램은 단지 '연애'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장흥군이 다음달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장흥바로알기 투어'는 '동네 친구'를 사귀기 위한 이들도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세 이상 39세 이하 장흥 관공서 및 공공·교육 기관,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미혼 남녀직원이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이 인구 소멸지역이다 보니 미혼남녀가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만남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매칭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가 보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



추석선물은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상생장터가 19일 광주시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열렸다. 구청 직원들이 말바우시장 등에서 내놓은 상품을 대량 구매해 수레에 실어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타이거즈 사랑 '흙런'...환경 생각은 '실책'

광주챔피언스필드서 7일간 컵 등 일회용품 3만5천여개 버려져 '친환경 야구장' 무색... 방문객 94% "다회용품 사용 의향 있다"

KIA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한 경기당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5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IA타이거즈와 광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야구장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팬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KIA타이거즈 홈경기장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7경기에 걸쳐 진행됐으며, 18명이 경기장 5개 구간

에서 4개 항목(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응원봉)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일회용컵 2만1858개, 빨대 5816개, 비닐봉지 8618개, 등 그밖에 일회용기도 다수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원봉 사용 자체를 권고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응원봉(75개)도 발견됐다.

경기장 휴지통 등에 버려진 일회용품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7만 9582탄소환산톤(tCO2eq, 다양한 온실가스를 온난화 효과를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수치)에 달한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야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일회용음료컵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일회용 수저, 일회용 음식용기 순이었다.

'야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교체하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4%가 '있다'고 대답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환경국장은 "광주시민들이 야구를 사랑하는 만큼 환경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 스스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린 뿐 아니라 KIA타이거즈와 광주시도 다회용기 사용시 야구장 내 음식 10% 할인 등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

금호고속, 22일부터 여수·순천~부산 해운대 운행

여수·순천에서 부산 해운대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새로 생긴다.

버스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한 뒤 해운대까지 40~50분은 더 이동해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순천~동래~해운대 노선을 신규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하루 4회 운행되며, 여수에서 부산 해운대까지는 총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금호고속은 모두 우등버스로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여수 출발 오전 8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5시 30분이다. 해운대 출발 버스는 오전 9시, 오후 12시, 2시 30분, 5시다.

운행요금은 여수~해운대 2만7800원, 순천~해운대 2만1400원, 여수~동래 2만5900원, 순천~동래 1만9400원이다. 모바일 앱 '티머니 Go'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시민들과 '광주 교육' 모델 만든다

광주교육시민협치 분과회의 출범

시민들이 광주교육 협치 모델 만들기 나섰다. 광주교육시민협치 분과회의가 지난 18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대강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출범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광주교육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된 '광주교육협치회의'의 하나다.

100여 명의 시민, 사회단체장,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성 교육, 책임교육, 공정교육, 미래교육, 마을교육, 실력형성, 시민협치 등 7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광주교육협치회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새로운 방식의 협치모델이다.

이번 출범한 분과 회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의 대표자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의 당연

직을 겸하며 시민단체 대표, 전직 시의회 의장,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됐다. 책임교육 분과회의에서는 김평안(중2년, 동부학생의회 회장)군이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민협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각 주제별 분과회에서 다양한 현상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